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주강하시어
주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 우크라이나에서 김현승 * 이선경 (모시아, 지수) 올림

● 따뜻한 성탄절 이야기

성탄절에 아이들이 대문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조용한 밤 거리에 들려오는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찬송, 어릴 적 성탄절에 아기예수 탄생을 감사하며 찬송했던 시간을 추억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처음 맞은 성탄, 저희 가족은 GMS 선교사님 중, 26년-30년의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두분의 싱글 여성선교사님들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선물을 전하며 율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묵묵히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며,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섬김이 선교사님들께 따뜻한 성탄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탐방 (12.28 - 1. 3)

2021년 12월 말, 아이들의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서부지역을 방문했습니다. 5박 6일의 일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차로 15시간 이동하여 도착한 첫 도시는, <무카체보>입니다. 집시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집시문화와 헝가리 문화, 우크라이나 문화가 섞여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무카체보>에서 농업기독교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백00선교사님 내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카체보>에서 5시간쯤 기차로 이동하여 <리비우>로 이동했습니다. 리비우는 폴란드 국경으로 부터 7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12월 31일 저녁에 <리비우>에 도착하여, GMS 이00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살롬장로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김현승 선교사는 살롬장로교회 신년예배에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살롬장로교회는 리비우에 있는 알콜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쉼터와 고아원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선경 선교사님 부부는 쉼터에서 회복된 형제, 자매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K-food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르신 땅의 필요를 찾아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을 탐방하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며 '우리가 여러가지 선교의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기도>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부지역을 향하여>



<무카체보 - 폴라타 성>



<살롬장로교회 1월2일 - 말씀 후 찬양>





●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저희 가정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위기의 상황들이 삶을 에워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싸움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정부는 여러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싸울 준비를 하거나, 타협할 길을 찾거나, 지금의 상황을 회피합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선택을 비난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살기 위한 그들만의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인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하며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생각해봅니다. 전쟁을 대비하고 대피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럼에도 매일의 기도 가운데 더욱 선명해 지는 것은 '주께서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전쟁을 지시하는 사령관이 아니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내 안에 오셔서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아버지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죽어야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아버지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티비에 나오는 전쟁고아가 아닌 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는다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불타는 긍휼과 사랑이 '믿음과 사랑의 기도'로 함께 하시는 보내는 선교사님들 안에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동시에 다니엘이 그랬던 것 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위로를 받고 큰 힘을 받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 GMS 우크라이나 지부 모임

코로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GMS 지부는 오랜 시간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회갑을 맞으신 선교사님들과 선교 30주년을 맞으신 원로 선교사님들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신입선교사 첫 인사를 위해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대한민국 대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중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전쟁을 대비할 것인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GMS 선교사들은 "자신의 집, 신학교, 센터를 열어 피난민들을 보호하고 도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GMS 선교사들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한선협 선교사들은 매일 새벽, ZOOM으로 모여 구국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보호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를 허락하심이 큰 감사요, 기쁨이 됩니다.



<GMS 우크라이나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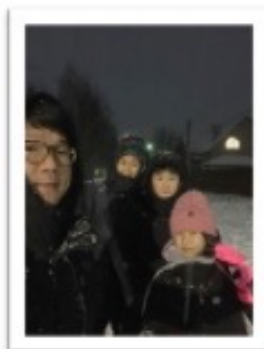
<신임 선교사 특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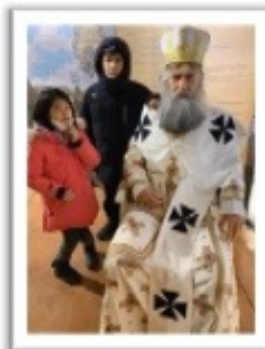
<신임선교사 인사>

PRAY FOR US

- 1) 러시아의 전쟁 위협과 내전으로 인해 고통 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지키시고 평강 내려주소서.
- 2)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대통령을 세워주소서.
- 3)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를 더욱 더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 4) 새로운 언어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요시아와 지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 5) 우크라이나어를 배우는 과정에 성실함과 신실함, 그리고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소서.
- 6) 우크라이나를 함께 사랑하는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개혁과 교육선교를 위한 센터를 허락하소서
- 7)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내는 선교사님들과 파송교회와 협력교회들을 주장하소서.
- 8)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기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중세시대 밀랍인형>



<매일 새벽 -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위한 구국 기도회>